

# 장성군, 약용작물 소득화 '본격 추진'

### 제조·유통 기업 (주)씨와이와 업무협약 지역 약용작물 우선구매로 판로 안정화

장성군이 지역 약용작물의 소득화를 위해 지역 기업과 손을 맞잡았다.

장성군은 지난 17일 장성군청에서 한약제조·유통 및 연구개발기업 (주)씨와이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역 기업과의 상생협력을 통해 장성에서 재배되는 고품질 약용작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해 마련됐다.

장성군은 농업인들이 '지황' 등 경쟁력 있는 약용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전문기술 지도 등을 적극 지원하고, (주)씨와이는 지역 내

생산된 약용작물을 우선 구매한다는 내용을 협약서에 담았다.

(주)씨와이는 장성 동화면에 소재한 한약재 제조·유통 및 연구개발기업이다. 군은 (주)씨와이가 생산하는 경옥고의 주원료인 '지황'을 납품하기 위해 '약초안정 생산단지'를 집중 육성하고 있다.

현재 장성에는 11농가가 1.1ha의 면적에 지황을 재배하고 있다. 군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지황의 재배면적을 2021년까지 5ha까지 확대하고, 이외에도 한약재의 원료로 쓰이는 약용작물의 재배면적을 점차 확대



장성군 & CY (주)씨와이  
군 약용작물 소득화를 위한 업무협약  
일시: 2019. 10. 17.(목) 장소: 장성군청 2층 상황실

할 계획이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이번 협약이 약용작물 재배농가에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마련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농업인은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해 우수 약용작물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고, 한약재 제조 기업은 질 좋고 믿을 수 있는 국내산 원료를 공급받을 수 있어 일거양득이 아니겠나"며 "지황이 장성의 대표 농산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성=박종영 기자

## 장흥군, 등산로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장흥군은 지역민의 안전을 위해 천관산과 역불산, 수인산 등 산로 일원에 국가지점번호판 30개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국가지점번호'란 건물이나 산악이나 해안가 지역에서 조난 및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구조할 수 있도록 적자형으로 구획한 지점마다 부여한 고유번호다.

장흥군은 2014년부터 10개 읍·면 주요 등산로와 해안가 등

군민의 왕래가 빈번하고 재난안전사고에 취약한 비주거지역에 국가지점번호판 317개를 설치했다.

최근 비주거지역에서의 레저 인구 증가 및 생활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국가지점번호판의 필요성이 더욱 높고 있다.

군은 위치 확인이 어려운 지역에서 사고 발생 시 국가지점번호를 통한 신속한 신고를 통해 생활 안전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 무안군, 최대 프랜차이즈 'BBQ'와 손잡아

무안군은 무안양파 소비촉진 및 안정적인 공급·판매 활성화를 위해 지난 17일 BBQ지킨 등으로 유명한 글로벌 외식전문기업인 제너시스 BBQ 그룹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날 업무협약식은 김산 무안군수와 윤홍근 제너시스 BBQ그룹 회장, 윤경주 부회장, 정광열 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업무협약에 따라 무안군은 우수 농산물 관련 각종 정책 및 정보와 행정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제너시스 BBQ 그룹은 무안군

에서 생산되는 무안양파의 소비촉진과 안정적 판로 구축에 기여하고 무안군 농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상품 개발·판매로 지역 농산물 판로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무안=이기성 기자

## '함평군립미술관 소장품展' 개최

함평군이 18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함평군립미술관 특별 소장품展을 개최한다.

함평엑스포공원 내 함평군립미술관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는 '2019 대한민국 국향대전' 개막을 기념해 총 2가지 테마로 한국 근·현대 미술작품 40여 점을 선

보인다.

제1전시실에는 '안녕, 대한민국'이란 주제로 대형 태극기 벽화와 일강 김철 (함평 태생, 1886~1934)을 비롯한 독립운동가 소개 자료가 전시된다.

특히 올해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인 만큼 한반도

지도, 태극기 등을 직접 만드는 체험프로그램과 임시정부 국무원을 형상화한 포토존도 마련됐다.

제2전시실에는 '바람, 별-風景'이란 테마로 가을, 겨울의 담담한 서정을 담은 작품들이 전시된다.

한국화와 서양화 기법으로 각각 표현된 김영태 화백의 '월출산', '바다가 보이는 풍경'과 신영복 화백의 '가을신수' 등 총 30

여 점의 작품이 전시될 예정이다.

함평군립미술관 관계자는 "국향대전을 찾는 많은 관광객들에게 폭넓은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제공하고자 이번 소장품展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그간 보존해왔던 함평만의 특색 있는 예술작품들을 자주 공개해 열린 미술관으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함평=김광춘 기자

## 강진군, 율농사 자체 평가회 개최

### 시범사업 분석·평가, 우수기술 발굴·보급 경영비 절감

지난 17일 강진군에서는 농업인과 관계공무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율해 농사와 기술센터에서 추진한 여러 시범사업에 대한 자체 평가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평가회는 식량작물, 원예작물 등 8개 분야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 우수사례 발굴과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확대 보급을 위해 마련한 자리로, 농업기술센터 실증포장, 농가 시범재배 포장 등 실내 평가와 현장평가로 이루어졌으며, 나주 농업기술원에 개최되고 있는 국제 농업박람회장도 참관하며 변화되는 첨단농업을 돌아보는 시간도

가졌다.

급년 시범사업 중 식량작물 분야의 벼 소식재배와 신품종 종자조기 보급사업, 원예 분야에서는 마늘 일관기계화 생산비 절감, 미래 유망과수 도입 시범사업이 농업인들로부터 집중적인 관심과 주목을 끌었다.

벼 소식재배는 기존 관행(60~70포기/평) 대비 소식재배(37포기/평)를 통하여 육묘 비용과 모판 나르는 수고를 덜 수 있어서 대면적 농가와 여성농업인들에게 큰 도움을 주는 재배법으로 군에서는 37농가에 22ha를 추진하였다.

신품종 조기 보급은 국립종자원

에서 아직 보급되지 않고 있는 벼 품종인 새청무 종자 보급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급년에는 잦은 태풍과 집중 호우 등 기상재해가 유달리 많았던 해로 쓰러짐 피해로 인한 수확아와 각종 병해충이 많이 발생 되었는데, 쓰러짐과 병해충에도 강하고 미질도 좋아 농업인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보였다.

현장평가는 농업기술센터 30여개 벼 품종 전시포장, 딸기재배, 사인머스켓 포도 재배포장 등 군내 일원의 실증 시험연구 포장에 대한 평가와 포장관리 요령 및 신기술 도입에 대한 농가들의 불신과 우려를 해소하고, 농가 상호 의견 교환을 통하여 보다 건설적인 재배법 정립을 위한 자리로 농가들의 호응을 받았다.

이날 평가회에 참석한 군동면

정귀등(75) 농가는 "평생 지어온 농사지만 내게 맞는 재배법 정립은 정말 어려운데, 오늘 농사 평가회에 참석하여 다른 실증 포장과의 상호 비교 평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좋았으며, 내년에는 이번 현장평가 결과를 토대로 더 나은 농사를 짓겠다"며 흐뭇해 했다.

이승욱 강진군수는 "올해는 마늘·양파 가격 하락에 이어, 잦은 강우와 7개의 태풍이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등 기상재해로 농사 짓기가 힘든 한 해였으며 오늘 평가회를 통해 우수기술 보급이 확대되고, 내년 농사에 반영하여 소득으로 연결되기를 기대한다"며, "우리 군 농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강진=김영일 기자

## 영암군, 귀농·귀촌 영농정착 교육 성료

영암군은 군으로 이주한 귀농·귀촌인과 이주 예정인 예비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하는 2019년 귀농·귀촌 영농정착 기술교육을 지난 8일 성공적으로 종료하였다고 밝혔다.

귀농·귀촌 영농정착 기술교육은 교육생들이 체계적인 기초영농교육과 농업정보를 제공받아 스스로 학습경험을 심화시켜 성공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영농기술, 영농현장 견학 교육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교육이

다.

2019년 교육 과정은 총92명이 24회 100시간 교육으로 이뤄졌으며 교육에 참여한 교육생들의 만족도 점수는 평균 90점으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번 교육에는 귀농인들이 정착 초기에 겪을 수 있는 시행착오와 애로사항 등에 대처할 수 있는 교육이 많아 교육생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이다.

영암=조대호 기자

#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옳은 정보를 구분하는 현명한 시민, 미디어 리터러시에서 시작합니다.

미디어 리터러시는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